

한국국제아트페어 광주 작가들 인기 '폭발'

광주지역 작가들이 국내 최대 규모의 미술 장터인 제7회 한국국제아트페어(KIAF·19일~23일·이하 키아프)에서 인기몰이를 하고 있다. 개막 2일째인 지난 20일, 키아프가 열린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 마련된 광주 작가들의

부스는 국내외 갤러리와 관람객들의 발길이 끊이지 않았다. 최재영, 이이남, 김숙빈씨는 작품작들을 모두 판매한 데 이어 해외 갤러리 관계자들에게 '러브콜'을 받는 등 좋은 성과를 얻었다.

또 이번 키아프에는 신진작가들의 작품이 대거 출품돼 관람객들을 사로잡았다. 아트페어가 미술장터의 역할뿐 아니라 미술의 최신 흐름을 보여주는 등 비엔날레와 더불어 미술계의 한 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는 것이다.

▲지역 작가들 인기몰이=국내 역대 최대 규모의 미술장터인 이번 키아프에는 20개국 218개 갤러리(국내 116, 해외 102)가 참여해 6천여점의 작품을 전시하고 있다. 광주에서는 나인갤러리가 유일하게 참가해 김대원·진원장(조선대 교수), 김상연, 김숙빈, 박수만, 오혜경, 이이남, 최재영씨 등 8명의 작품을 선보이고 있다.

가 중심이 아니라 가능성 있는 신진작가들이 대거 참여하고 있다는 점이 다. 이때문에 가격 흥정을 위해 폐막 직전에 작품이 팔리던 것과는 달리 개막 초기부터 저평가 된 신진작가들을 선점하기 위한 경쟁이 치열하다. 아트페어가 갤러리들의 '소장품 딸이 장터'가 아니라 신진작가를 발굴하는 미술 축제가 된 셈이다.

또 비엔날레 못지 않는 실용적인 작품들이 대거 출품돼 교육의 장 역할도 특출히 하고 있다. 지난 20일 조선대 미술학과 등 지역 미술 학도 60여명



20일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린 제7회 한국국제아트페어에서 관람객들이 작품작들을 둘러보고 있다.

부스마다 관람객들 발길 '북적'

해외 갤러리 '러브콜'도 잇따라

이랑(유엔갤러리), 고근호(아트파크 갤러리), 송필용(이화익갤러리), 김웅관(조선화랑)씨 등 9명도 타지역 갤러리의 초대로 전시에 참여했다. '눈이 큰 아이' 연작을 선보이고 있는 최재영씨는 등장인물의 천진난만한 표정을 최대한 살린 신작 5점을 발표해 개막 첫날 모두 판매했다. 또 스위스 등 유럽 지역 3개 갤러리의 눈에 띄어 유럽 전시회 일정을 협의하고 있다. 전통 한국화나 유명 작품의 원화에 움직임은 가미한 '미디어 아트' 연작을 출품한 이이남씨도 20여점을 팔아치워 인기작가가 됐다. 김숙빈씨도 지난 2년 동안 제작한 조각 '화려한 추락' 등 2점을 판매했다.

이 다녀간 것을 비롯해 광주·전남지역 작가 20여명도 키아프 관람에 나서 세계 미술 동향을 살펴봤다. 부대 행사로 마련된 다양한 특별전도 관람객들을 사로잡았다. '스위스 신진작가'전에는 마르크 바우어, 에릭 슈타인브레허, 피터 레글리 등 스위스의 신인 작가 3명이 작품을 선보였다. '한국 중견작가전'에서는 구분창, 권대삼, 민병현, 이강소, 등 한국 화단의 대표 작가들이 근작을 전시했다.

반면 올해 키아프에는 작품이 베끼는 '진본 모방단'도 눈에 띄었다. 중국에서 온 일부 작가와 갤러리 관계자들이 창작 기법 등을 모방하기 위해 출품작들을 영상에 담아 지역작가들에게 때마침 '작품 보호령'이 떨어지기도 했다.

▲신진작가 대거 참여=이번 키아프의 두드러진 특징은 잘 팔리는 데

/서울=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 뮤지컬 '시카고' 그 장면 그 음악



'시카고'의 메인 테마인 'All That Jazz'를 부르는 장면.

막이 열리면 'All That Jazz' 끈적끈적한 재즈의 세계로 안내

공연계를 장악하고 있는 뮤지컬은 연기와 춤, 화려한 의상, 변화무쌍한 세트 등 다양한 즐길거리가 많지만 무엇보다 관객들의 마음을 잡아 당기는 '노래'가 있어 기대감을 갖게 한다.

어우러진 '그 장면, 그 노래'를 소개한다. 막이 열리면 귀를 가장 먼저 잡아당기는 건 작품의 메인 테마인 'All That Jazz'와 'Cell Block Tango'다. 몸매를 적나라하게 보

는 부분이기도 하다. 벨마가 1인 2역을 하며 부르는 'I Can't Do It Alone'은 고난도의 춤을 선보이면서도 목소리의 흔들림이 전혀 없는 김지현의 실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노래다.

빌리가 부르는 'All Care About'

남경주 매력에 관중들 박수 갈채

오는 10월 3~5일까지 광주문예회관 대극장에서 공연되는 '시카고' 역시 14인조 재즈 빅밴드가 연주하는 '음악'이 돋보이는 작품이다.

뮤지컬 '시카고'는 1920년대 시카고를 배경으로 감옥에 갇힌 여죄수 벨마 케리와 복시하트를 통해 인간의 끝없는 욕망이 들끓는 사회상을 보여주는 작품. '시카고' 속에 등장하는 재즈 넘버 22곡 모두가 놓치지 아까운 명곡이지만, 그 중에서도 배우들의 명연기와

여주는 시스루 의상을 입은 벨마와 여성 앙상블이 함께 부르는 이 노래는 작품의 시작부터 관객들을 끈적끈적한 재즈의 세계로 안내하며 관능미를 제대로 발산한다.

변호사 빌리와 여자들이 함께 부르는 'All Care About'은 빌리역을 맡은 남경주의 매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노래다. 능글맞은 연기로, 여자 앙상블과 함께 호흡을 맞추는 남경주가 곡의 마지막 부분에서 시원스럽게 뿜아내는 고음은 관객들에게 가장 많은 박수를 받

는 'Class'는 아름다운 멜로디와 두 사람의 아름다운 화음이 어우러져 마음을 울리며 바보같은 복시의 남편 아모스 하트가 부르는 'Mister Cellophane'은 감성선을 자극하며 잔잔한 여운을 남겨준다.

극의 마지막 부분에서 교도소의 터줏대감 마마와 벨마가 함께 부르는 'I Can't Do It Alone'은 고난도의 춤을 선보이면서도 목소리의 흔들림이 전혀 없는 김지현의 실력을 가장 잘 보여주는 노래다. 주인공은 아니지만 조역들이 함께 호흡을 맞추는 곡들도 인상적이다. 극의 마지막 부분에서 교도소의 터줏대감 마마와 벨마가 함께 부르는 'Class'는 아름다운 멜로디와 두 사람의 아름다운 화음이 어우러져 마음을 울리며 바보같은 복시의 남편 아모스 하트가 부르는 'Mister Cellophane'은 감성선을 자극하며 잔잔한 여운을 남겨준다. 그밖에 극을 열고 닫는 재즈 빅밴드의 연주곡은 재미있는 퍼포먼스가 어우러지면서 관객들에게 흥겨움을 선사한다. 13세 이하는 관람할 수 없다. 티켓 가격 11만원~5만5천원. 공연문의 1588-0766. /김미연기자 mekim@kwangju.co.kr

07 광주비엔날레 글로벌 인스티튜트 세션2 08 24~27일 전남대 예술대 2호관서 열려

국내의 미술학도들의 교육의 장인 2008 광주비엔날레 글로벌 인스티튜트(Global Institute) 세션2가 24~27일까지 전남대학교 예술대 2호관에서 열린다.

세계미술계의 담론을 제시하기 위해 열리는 글로벌 인스티튜트 세션2에는 오쿠이 엔위저 에

솔총감독 등 15명의 패넬과 전남대, 한국예술종합학교, 영국 왕립미술학교, 미국 샌프란시스코 아트인스티튜트, 이스라엘대학 등 48명의 대학생이 참여한다.

오는 24일(오전 10시) 세미나에서는 '스펙터클의 정치학'을 주제로 오쿠이 엔위저 감독이 토론

에 나선다. 25일(오전 10시10분)에는 '광주정신'을 주제로 패넬과 학생들이 참가하는 세미나가 열린다. 또 26~27일(오전 10시~오후 6시)에는 전남대 응봉문화관에서 국제심포지엄 형식으로 참여자 간 발제와 질의가 이뤄진다.

26일은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이남희 동아시아학 교수 등의 지도로 광주의 5·18 민주정신, 프랑스 오일혁명 등 사회 문화적 관계와 의미를 재조명한다. 또 27일에는 전남대 윤수중 교수(사회학과)가 '68혁명과 자율운동'을 주제로 강의를 한다. /오광록기자 kroh@kwangju.co.kr

'정율성 음악제' 27일 中 난창서 무대

'화합의 선율, 평화의 축제'를 주제로 열리는 제 4회 광주정율성국제음악제(이하 정율성 음악제)가 광주 공예관에 앞서 27일 중국 난창시에서 무대를 마련한다.

중국 최고의 음악가로 꼽히는 광주 출신 정율성 선생을 기리는 정율성 음악제는 올해 사업을 다변화, 상반기 중 실내와 축제(대구현대음악제 참가·광주공연)와 학술세미나를 개

최했고, 하반기 첫 행사로 중국 공연을 준비했다.

27일 난창 방송센터 공연장에서 열리는 '난창정율성음악회'에는 광주 시립소년소녀합창단, 소프라노 진귀옥, 테너 안형렬, 가야금 연주자 성심출신 정율성 선생을 기리는 정율성 음악제는 올해 사업을 다변화, 상반기 중 실내와 축제(대구현대음악제 참가·광주공연)와 학술세미나를 개

'정율성 곡 모음' 등이다.

또 26일에는 난창 소피탈 호텔에서 박광태 광주시장과 임철정 정율성음악제 집행위원장 등이 참여한 가운데 기자 간담회와 대금산조·한국무용 등이 어우러진 축하공연이 열린다.

오는 10월 22~25일까지 광주문예회관에서 열리는 광주 공연에서는 그 레미상을 5회 수상한 세계적인 아가펠라 그룹 스윙글심어즈와 피아니스트 손열음 협연 등이 열릴 예정이다. 문의 062-511-1265. /김미연기자 mekim@kwangju.co.kr

무안 - 광주(황산, 구화산) 무안공항 직항 전세기

무안 - 장사(장가게, 원가게) 무안공항 직항 전세기

* 공항 주차장 무료이용

* 개인 차에의 만족도를 주는 광주MBC문화방송 상품입니다(www.kmbc.co.kr)

"기존의 예치 상품과 차이가 있습니다"

무안-광주 직항 전세기

무안-광주 직항 전세기 4월 4일 ₩ 483,000 / 4월 5일 ₩ 788,000

- 무안-광주 직항 전세기, 공항에서 차량 렌탈 서비스 제공함
- 무안-광주 직항 전세기, 공항에서 차량 렌탈 서비스 제공함
- 무안-광주 직항 전세기, 공항에서 차량 렌탈 서비스 제공함
- 무안-광주 직항 전세기, 공항에서 차량 렌탈 서비스 제공함
- 무안-광주 직황 전세기, 공항에서 차량 렌탈 서비스 제공함
- 무안-광주 직항 전세기, 공항에서 차량 렌탈 서비스 제공함

무안-장사 직항 전세기

무안-장사 직항 전세기 4월 4일 ₩ 620,000 / 4월 5일 ₩ 885,000

- 무안-장사 직항 전세기, 공항에서 차량 렌탈 서비스 제공함
- 무안-장사 직항 전세기, 공항에서 차량 렌탈 서비스 제공함
- 무안-장사 직항 전세기, 공항에서 차량 렌탈 서비스 제공함
- 무안-장사 직항 전세기, 공항에서 차량 렌탈 서비스 제공함
- 무안-장사 직항 전세기, 공항에서 차량 렌탈 서비스 제공함
- 무안-장사 직항 전세기, 공항에서 차량 렌탈 서비스 제공함

다음, 여기에서 자세히 보실 수 있습니다. **광주MBC 문화방송** - **무안공항**

광주MBC 문화방송 - 광주/전남 북 유망여행사 ☎ 문의 062-226-6070